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및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370명(남자 169명, 여자 201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문제해결척도, 사회적지지척도, 자살사고척도, 아동기 피학대 경험척도 등이다.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아동기 학대경험, 문제해결, 사회적지지가 자살사고를 얼마나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지와 문제해결과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 보기위해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의 정서적학대가 청소년 자살사고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신체적 학대, 방임, 부모간 폭력, 성폭력 또한 자살사고와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는 방임, 정서적 학대, 중복피학대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특히 중복피학대경험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대의 복합적인 경험이 자살사고에 크게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아동기 피해를 경험했어도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사고가 낮았으며, 동일한 아동기 학대 경험 하에서 문제해결능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 보다 자살사고를 더 적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자살사고, 아동기 학대, 문제해결, 사회적지지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26
전화 : 02) 970-5885, E-mail : kpark@swu.ac.kr

자살행동은 청소년 자신과 그들의 가족에게 까지 정신건강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소년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어 왔다. 2004년도 통계청의 연보에 따르면 질병에 의한 사망 원인을 제외하고는 자살은 교통사고를 앞질러 제일 높은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도 사망 원인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조성진외(2002)의 연구에 의하면 중 고등학생의 경우 남자의 26.9%와 여자의 34.9%가 자살사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모두 자살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나 자살사고가 자살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살사고의 위험요인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기여하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상대적인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이경진, 2003; Pillay & Wasenaar, 1997). 이와 같은 연구는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밝히려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 사고가 다른 변인들에 의해 조절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변인들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Yang & Clum, 1994; Chang, 2002).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자살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무망감, 낮은 자존감, 문제해결 등의 조절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인지적 변인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 해결은 우울(Cheng, 2001; 박경,

2004a; Spence, Scheffield & Donovan, 2002)이나 자살 행동(Chang, 1998; Reinencke, DuBois & Suchltz, 2001)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여기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란 개인의 정의에 의한 인지적 행동적 과정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처 전력을 가리킨다(D'Zurilla & Nezu, 1990). 초기의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Means-end Problem Solving Measure(MEPS: Platt & Spivack, 1975)와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지만 자신이 지각하는 문제해결 능력은 평가절하 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자신이 지각하는 문제해결 능력 간에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Heppener와 Petersen(1982)은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Problem Solving Inventory(PSI)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총 2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지각을 측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리키는 Problem Solving Confidence, 문제 해결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접근 혹은 회피 유형을 나타내는 Approach-Avoidance Style,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자신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통제를 나

타내는 Personal Control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PSI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인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심리적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Dixon, Heppner & Anderson, 1991; Dixon, et al, 1993).

Yang과 Clum(1994)은 일찍이 자살사고가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의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포함한 인지적인 변인들에 의해 매개된다는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명숙(199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스트레스가 절망감과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문제해결 능력과 스트레스가 절망감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 밝혀졌으나 자살사고를 예언해 주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기에 비해 인지적, 정서적으로 보다 성숙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 바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인 Chang(2002)의 연구에서도 자살의 위험이나 자살사고를 소질 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하여 생활스트레스와 자살 사고 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의 역할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문제해결은 이 둘 간에서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또한 소질 스트레스 모델을 근거로 하여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의 역할 살펴본 박경(2004b)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 해결이 비효율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자살사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 사고 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및 자존감간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고, 사회적 문제해결과 무망감이 스트레스와 자살사고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 자살사고나 자살시도, 나아가 자살로 인한 사망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인지적 변인 중 문제 해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특히 문제해결 신념이 중요함이 강조되어왔다(Clum & Febbraro, 1994; Esposito & Clum, 2002). 또한 자살행동에 대한 문제 해결의 역할이 여러 연구들에서 검증되면서 자살행동의 예방이나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또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가운데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자살사고를 중재하는 변인이라는 점은 Rudd(1990)가 처음 주장하였고, 이 이전에는 사회적 지지와 자살 사고나 우울 등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Rich & Bonner, 1987; Dubow, Kausch, Blum, Reed, & Bush, 1989) Rudd에 의하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개인은 사회적지지의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결과 부족한 사회적 지지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자살사고가 증가하고, 사회적지지가 빈약할 때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되어 겪는 고통의 정도가 더 상승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친구나 가족, 기타 주요한 타인과의 사회적인 관계가 빈약하고 이들로부터의 지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자살행동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De Man & Leduc, 1995)를 보여준 바, 이러한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Yang과 Clum(1994)은 우울, 무망감,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모델을 제시하였고 동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모델을 검증 한 바 있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자살 사고 간에서 직접적인 영향

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자살사고와 우울, 무망감, 자살 사고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자살 위험이 높은 10대 청소년에게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자살 행동의 다양한 원인들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은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고 어린시기의 외상적인 스트레스와 자살행동과의 관계 중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이다. 개인이 겪었던 외상적인 스트레스란 아동기학대, 성폭력, 자연재해, 전쟁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등이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연구자들은 아동기 학대나 성폭력 스트레스는 이후에도 개인에게 자살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Nilsen & Conner, 2002; Adams & Lehner, 1997; Yang & Clum, 2000; Langhinrichsen-Rohling, Monson, Meyer, Caster & Sanders, 1998).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Yang과 Clum(1996)이 18세 이전 생애 초기에 폭력 등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경험 및 역기능적인 사고 양식과 개인의 자살 행동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이래 아동기 학대와 인지적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정신과 환자집단에서 자살행동이 빈번하다는 보고(Brown & Anderson, 1991) 및 성피해 치료를 받은 환자의 49%가 한번이나 그 이상의 자살시도 경험이 있었다는 연구(Anderson, Yassenik, & Rose, 1993)

등과 같이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 및 행동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울증 환자의 23%-35%가 한번이라도 자살을 시도한다는 연구 결과(Tanney,1992) 보다 높다. Adams와 Lehnert(1997)는 아동기 학대는 전쟁에 의한 외상보다도 자살 행동에 있어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Yang와 Clum(2000)은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아동기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자살사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에 인지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며 이를 통해 자살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는 아동기 학대와 자살행동이나 자살 사고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함에 있어 어떠한 학대 경험을 했는지에 따른 자살사고의 위험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학대가 자살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기 학대의 여러 유형과 자살사고와의 관계는 연구자의 학대 유형의 관심에 따라 연구 대상자에 따라 다소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Nilsen과 Conner(2002)의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 신체 및 정서 학대와 자살 사고는 관련이 있으나 성적인 학대는 자살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Langhinrichsen-Rohling등(1998)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자살행동 및 우울 간에 관련이 있었다.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도 아동기 신체적 학대가 자살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Silverman, Reinherz, & Giaconia, 1996; Kaplan, et al, 1999)과 성적학대가 자살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Esposito & Clum, 2002). 이와 같이 아동기 학

대 유형과 자살사고와의 관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은 정신 병리에 취약하며 가족 지지의 부족, 손상된 자기 평가 등이 자살사고에 있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동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모든 아동들이 이후에 자살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문제해결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인들의 중재에 의해 자살사고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더라도 문제해결의 신념 등에 의해 자살사고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시에 학대 경험이 있더라도 사회적 지지의 중재에 의해 자살사고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자살행동의 심각성은 주지된 사실이며 아동기 심각한 외상인 학대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 한 연구가 미흡하고 더욱이 이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같은 인지적 변인과 사회적지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수행 된 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아동기 학대, 문제해결, 사회적 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자살사고를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둘째,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사회적지지가 중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서울시 소재 2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

년과 2학년 학생 남녀 40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한 문항이라도 대답하지 않거나 무작위로 답하여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39명을 제외한 370명(남자 169명, 여자 201명)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령 평균은 16.74세(SD=1.10)였으며, 1학년이 166명(44.9%), 2학년이 204명(55.1%)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문제해결 척도

Heppner와 Petersen(1982)의 문제해결척도(Problem Solving Inventory: PSI)는 자신의 문제해결 행동과 태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박경(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SI는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Problem Solving Confidence), 접근-회피 유형(Approach-Avoidance Style), 개인적 통제(Personal Control)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답안은 6점 척도이며 낮은 점수는 자신이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이 비효율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PSI를 2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83-.89이며, 신뢰도 계수는 .72-.90으로서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다(Heppner, 1988).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8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이 .79, 접근-회피 유형이 .75, 개인적 통제가 .65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Dubow와 Ullman(1989)의 사회적 지지평가척도, 박지원(1986),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평가 척도를 수정 보완한 이경주(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지지원과 지지유형의 두 척도로 나뉜다. 지지원은 가족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의 세 영역이며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지유형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영역이며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경주(1997)의 예비조사에 의한 요인분석에서 지지원 차원은 가족 지지(5), 교사 지지(5), 또래 지지(5)의 3개요인, 15문항 이었고, 지지 유형은 정서적인지지(6), 자존감지지(5), 물질적인지지(3), 정보적인 지지(3)의 4개요인, 17문항이었다. 이 두 차원의 지지 수준은 Likert형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아주 그렇다는 5점을 주었으며, 지지 유형의 12번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이므로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자살사고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이 척도는 Beck, Kovacs 및 Weissman(1979)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서 원래는 임상가가 임상 장면에서 면접을 통해 평정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답안은 0에서 3점의 범위인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및 김중술(1990)이 Beck 등의 척도를 자가 보고식 척도로 변형시킨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아동기 피학대 경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피학대 경험의 5가지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개별 피학대 유형을 알아보는 기존 문항들(백경임,1998)을 토대로 이주성(2004)이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기 피학대 경험 척도는 신체학대(10문항), 정서학대(9문항), 방임(9문항), 성학대(9문항), 부모 간 폭력 목격(10문항)의 5가지 하위 유형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누가 가해 하였는지와 피학대 기간(첫 나이와 마지막 나이)을 응답하게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0점)에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4점)등의 5점 척도에 반응하게 하여 각 문항에 체크한 빈도를 합하여 유형별 빈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중복피학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각 하위 유형에서 한 문항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반응하면 그 유형의 학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경험한 피학대 하위유형수를 더하여 중복피학대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신체 학대의 경우 .92, 정서적 학대는 .88, 방임은 .87, 성 학대는 .88, 부모 간 폭력은 .8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와 문제 해결, 사회적 지지, 자살사고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기 학대와 문제 해결,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얼마나 유의하게 설명해주는지 알아보고 특히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dows 10.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청소년 자살사고와 아동기 학대 경험, 문제 해결,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

청소년 자살사고와 아동기 학대 경험, 문제 해결,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동기 학대 경험은 청소년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의 5가지 하위 변인 중 정서적 학대가 청소년 자살사고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387, p<.001$. 신체적 학대($r=.315, p<.001$), 방임($r=.274, p<.001$), 부모 간 폭력

($r=.272, p<.001$) 역시 청소년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성학대의 경우도 청소년 자살사고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r=.128, p<.05$. 또한 중복 피학대 역시 청소년 자살사고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r=.380, p<.001$. 문제해결의 경우에는 3가지 하위 변인 중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이 청소년 자살사고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49, p<.001$. 개인적 통제($r=.305, p<.001$) 역시 청소년 자살사고와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접근 회피 유형은 청소년 자살사고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70, ns$.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경우도 청소년 자살사고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569, p<.001$.

표 1. 청소년 자살사고, 아동기 학대 경험, 문제해결,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 (N=370)

| | 자살 사고 | 신체적 학대 | 방임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부모간 폭력 | 중복 피학대 | PSC | AAS | PC | 사회적 지지 |
|---------|----------|----------|----------|----------|---------|----------|----------|----------|----------|----------|--------|
| 자살 사고 | 1.00 | | | | | | | | | | |
| 신체적 학대 | .315*** | 1.00 | | | | | | | | | |
| 방임 | .274*** | .397*** | 1.00 | | | | | | | | |
| 정서적 학대 | .387*** | .636*** | .414*** | 1.00 | | | | | | | |
| 성적 학대 | .128* | .552*** | .365*** | .296*** | 1.00 | | | | | | |
| 부모 간 폭력 | .272*** | .592*** | .397*** | .424*** | .598*** | 1.00 | | | | | |
| 중복 피학대 | .380*** | .639*** | .495*** | .587*** | .454*** | .707*** | 1.00 | | | | |
| PSC | .349*** | .149** | .075 | .177** | .021 | .104* | .161** | 1.00 | | | |
| AAS | .070 | .116* | .071 | .100 | .044 | .047 | .076 | .475*** | 1.00 | | |
| PC | .305*** | .077 | .089 | .168** | .009 | .082 | .127* | .361*** | .093 | 1.00 | |
| 사회적 지지 | -.569*** | -.253*** | -.298*** | -.361*** | -.130* | -.271*** | -.348*** | -.372*** | -.233*** | -.333*** | 1.00 |
| M | 6.03 | 1.32 | 2.85 | 3.88 | .34 | 1.22 | .32 | 35.02 | 49.78 | 19.58 | 113.42 |
| SD | 6.66 | 3.37 | 5.61 | 5.61 | 1.91 | 3.18 | .71 | 6.44 | 7.87 | 3.66 | 19.84 |

*** $P<.001$, ** $p<.01$, * $P<.05$

PSC :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 AAS : 접근 회피 유형, PC : 개인적 통제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대한 아동기 학대 경험과 문제 해결, 사회적 지지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한 아동기 학대 경험과 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의 5개 하위 변인과 중복 피학대 경험 빈도를 투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의 3개 하위변인을 투입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의 5개 하위 변인, 중복 피학대 경험 빈도와 문제해결의 3개 하위 변인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의 5개 하위변인, 중복 피학대 경험 빈도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한 아동기 학대 경험, 문제해결, 사회적 지지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3개의 독립변인 모두 청소년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의 경우 19.7%($p < .001$)로서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는데 5개 하위변인 중 방임($\beta = .133, p < .05$), 정서적 학대($\beta = .215, p < .01$)가 청소년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으며 중복 피학대($\beta = .196, p < .01$) 역시 유의하였다.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 역시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문제해결의 경우 10.5%($p < .001$)로서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으며 하위 척도인 문제

해결에 대한 신념($\beta = .278, p < .001$)과 개인적 통제($\beta = .152, p < .01$)가 청소년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해주었다. 사회적 지지 역시 11.7%($p < .001$)로서 청소년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해주었다.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 경험과 문제 해결의 상호작용은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이 3.0%($p < .05$), 아동기 학대 경험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은 1.9%($p < .05$)로서 유의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의 5개 하위 요인 중 정서적 학대와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의 상호작용($\beta = .260, p < .05$), 방임과 개인적 통제의 상호작용($\beta = .119, p < .05$)이 청소년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다. 또한 부모 간 폭력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beta = -.343, p < .01$)도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으며 중복 피학대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역시 청소년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다. $\beta = -.229, p < .05$. 따라서 아동기 학대와 청소년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가 중재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한 수준의 정서적 학대 경험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자신의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이 낮은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의 방임을 당한 경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개인적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더 많은 자살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한 부모 간의 폭력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자살사고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중복 피학대 경험이 있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중복 피학대

표 2. 청소년 자살사고에 대한 아동기 학대 경험, 문제해결, 사회적 지지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370)

| 독립변인 | B | β | t |
|-------------------------------|-------|---------|-----------|
| 신체적 학대 | .109 | .055 | .743 |
| 방임 | .134 | .133 | 2.035* |
| 정서적 학대 | .256 | .215 | 3.272** |
| 성적 학대 | .397 | .114 | 1.785 |
| 부모 간 폭력 | .008 | .041 | .550 |
| 중복 피학대 | 1.828 | .196 | 2.510** |
| $R^2 = .197(p < .001)$ | | | |
| $\Delta R^2 = .197(p < .001)$ | | | |
| PSC | .288 | .278 | 5.128*** |
| AAS | .009 | .105 | 1.289 |
| PC | .277 | .152 | 3.167** |
| $R^2 = .302(p < .001)$ | | | |
| $\Delta R^2 = .105(p < .001)$ | | | |
| 사회적지지 | -.139 | -.412 | -8.488*** |
| $R^2 = .419(p < .001)$ | | | |
| $\Delta R^2 = .117(p < .001)$ | | | |
| 신체적 학대 × PSC | .000 | .006 | .064 |
| 방임 × PSC | -.101 | -.098 | -1.667 |
| 정서적 학대 × PSC | .108 | .260 | 2.500* |
| 성 학대 × PSC | -.005 | -.083 | -1.006 |
| 부모 간 폭력 × PSC | .002 | .102 | 1.100 |
| 중복 피학대 × PSC | .199 | .169 | 1.733 |
| 신체적 학대 × AAS | .004 | .183 | 1.697 |
| 방임 × AAS | .000 | .054 | .738 |
| 정서적 학대 × AAS | -.000 | -.041 | -.973 |
| 성 학대 × AAS | .002 | .063 | 1.308 |
| 부모 간 폭력 × AAS | -.001 | -.059 | -.740 |
| 중복 피학대 × AAS | .008 | .070 | .882 |
| 신체적 학대 × PC | -.002 | -.042 | -.620 |
| 방임 × PC | .003 | .119 | 2.361* |
| 정서적 학대 × PC | -.000 | -.025 | -.327 |
| 성 학대 × PC | .005 | .027 | .546 |
| 부모 간 폭력 × PC | .007 | .101 | 1.422 |
| 중복 피학대 × PC | -.136 | -.038 | -.489 |
| $R^2 = .449(p < .05)$ | | | |
| $\Delta R^2 = .030(p < .05)$ | | | |
| 신체적 학대 × 사회적 지지 | .000 | .050 | .352 |
| 방임 × 사회적 지지 | -.000 | -.121 | -1.518 |
| 정서적 학대 × 사회적 지지 | .000 | .092 | .913 |
| 성 학대 × 사회적 지지 | .003 | .289 | 1.358 |
| 부모 간 폭력 × 사회적 지지 | -.002 | -.343 | -2.610** |
| 중복 피학대 × 사회적 지지 | -.008 | -.229 | -2.048* |
| $R^2 = .468(p < .05)$ | | | |
| $\Delta R^2 = .019(p < .05)$ | | | |

*** $P < .001$, ** $p < .01$, * $P < .05$

PSC :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 AAS : 접근 회피 유형, PC : 개인적 통제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자살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청소년 자살 행동에 대한 여러 심리사회적인 예언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제한점으로 인해 자살행동 중에서도 자살사고나 자살시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살시도에 대한 연구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원인론적인 접근의 대안적인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으며 자살시도나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살사고에 대한 연구 역시 자살행동의 예방적 차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자살행동의 사회적 위험성은 많이 역설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자살 관련 연구는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광경필, 송창진, 사공정규 및 이광현(2004)도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자살행동에 관한 연구의 미흡성을 지적하면서 향후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대책을 자살위험인자에 대한 국내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아동기학대, 문제해결, 사회적 지지가 자살사고를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 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살사고와 아동기 폭력과의 관계가 입증되어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Langhinrichsen-Rohling, et al., 1998; Yang & Clum, 2000; Esposito & Clum, 2002). 그러나 아동기 폭력의 유형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대상자나 어떠한 학대 유형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지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각 학대유형과 자살 사고 간에는 모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자살 사고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는 학대는 정서적인 학대와 방임, 그리고 중복학대 등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Esposito등(2002)연구에서는 방임이나 정서적인 학대까지 포함시켜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신체학대와 성적 학대가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대상의 Kaplan 등(1999)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자살행동을 연구한 결과, 신체적 학대가 자살사고의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연구에서는 학대의 여러 형태를 포함시켜 연구하지 않은 반면에 학대의 여러 형태를 포함시킨 Yang과 Clum(2000)의 연구 결과는 신체학대, 방임과 부모와의 분리 등이 성폭력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즉 Yang등의 연구는 신체학대 뿐 아니라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학대등도 자살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모 간 폭력의 목적은 대학생 대상으로 한 Langhinrichsen-Rohling등(199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살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연구들은 신체학대 경험이 지속적으로 개인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이 확인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연구 대상자들의 신뢰로운 보고 여하와도 관련 될 수 있겠으나 우

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의 신체학대에 대해 보다 더 둔감함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앞으로 요망된다.

Clum등(1994)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인 변인들 가운데 문제해결의 부족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자살사고를 포함한 자살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이를 검증한 연구들은 자살사고나 자살행동의 위험성이 실제로 높은 집단인 청소년 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많았으나, 문제해결의 부족이 청소년들의 우울이나 자살사고의 위험성을 증가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adowski, Kelley, 1993; Reinen, DuBois, & Suchultz, 2001; 박경, 2004b). Yang등(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와 같은 스트레스 역시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전략의 발달을 저해하는지를 검증 한 결과, 초기 스트레스는 인지적 기능의 손상을 초래되며 이는 이후에도 안정적이었다. 이는 아동기 학대가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문제해결이 자살사고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해결 하위 척도 가운데는 문제해결신념 및 자기통제가 유의하게 자살사고를 설명해 주었다. 뿐 만이 아니라 문제해결은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를 중재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Esposito등(2002)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자살사고 간에서 문제해결의 중재 효과는 나타났으나 성적 학대와 자살사고 간에서 중재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인 학대 및 방임과 문제해결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바, 이는 정서적인 학대 및 방임이 다른 학대들에 비해 효과적인 문제해결 전략의 발달을 저해하며, 이러한 손상은 개인이 직면하는 사건에

대해 통제할 수 없고 무기력한 것으로 지각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가 자살사고를 1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선행 연구(D'Attilio et al., 1992; 임수영, 1995.; Kaltiala et al., 1999; Field, Diego & Sanders, 2001; Esposito & Clum, 2002)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임수영(1995)의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이 6.9%로 본 연구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 및 친구, 교사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인 지지는 자살사고를 완충시키는 주요한 변인(Kaplan et al., 1999)이 될 뿐 아니라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 간을 중재하는 중재 변인이 된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Clum & Febraro, 1994; Yang & Clum, 1994)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여러 학대 유형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살펴 본 결과는 중복피학대와 사회적 지지 및 부모 간 폭력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성적 피학대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추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반영해 준 것으로 보이며 부모 간 폭력 시는 사회적지지에 민감하고 지지 추구가 많음을 시사하고 이것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Esposito등(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체벌을 이유로 쉽게 행해지고 있으므로 심리적 고통을 덜기 위한 전략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그리 유용한 전략이지 못함을 반영한 것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복피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 여하에 따라 자살사고는 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사고 예방에 대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 사회적 지지가 자살사고를 중재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살사고를 줄이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이는 상담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을 다루는 데 있어 각 개인의 사회적 지지망을 마련해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혀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vans, Hawton과 Rodham(2004)은 자살행동 및 자살사고를 예방하는 학교장면에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청소년들의 자살행동 및 자살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살사고나 행동에 대한 위험요인 예컨대 우울이나 과거의 성적 신체적 학대의 경험들을 미리 파악한다든지, 자살을 시도한 친구와의 접촉이나 가족관계가 좋지 않거나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요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 교사는 이런 위험요인을 보이는 학생들을 모니터하여 상담기관에 학생들을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교사 제도가 앞으로 정착 된다면 위험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의 위험 요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청소년의 자살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정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학급담당교사는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개개인의 환경적 변화나 언급 된 위험 요인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본 연구 결과 문제해결 신념과 자기통제가 자살사고를 설명해 주는 강력한 변인일 뿐 아니라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를 중재하는 중재변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인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 치료적 개입으로서 인지행동적인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이 연구 결과를 행동문제나 실제 자살 위험이 높은 임상환자 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살행동 문제를 지닌 환자 집단이나 비행집단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간의 인과적 해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 간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의 중재효과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를 확장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다면 이들 변인간의 인과적인 관계 이해가 가능하고 이러한 결과들은 자살사고 예방을 다양화하는 정책 및 상담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여러 학대유형 가운데서도 신체적 학대와 성적인 학대가 자살사고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들이 이러한 학대에 대해 솔직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적 학대와 성적

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혹은 개인적인 둔감함을 반영한 것은 아난지에 관한 향후 연구가 요망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인 학대 및 방임 등이 자살사고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 넷째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사회적지지의 하위 유형을 포함시키지 못한바, 이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경우 다중 공산성의 문제로 인해 적합한 회귀식이 성립되기 어려운 점이 유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 상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분석을 따로 실시하지 못한 바, 이는 연구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분석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김명숙 (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곽경필, 송창진, 사공정규, 이광현 (2004). 자살 위험 요인의 평가와 예측. *동국의학*, 11(1), 83-94.

박경 (2004a).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문제해결과 완벽주의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265-283.

박경 (2004b). 청소년의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 자존감, 무망감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청소년 상담연구*, 12(2), 96-106.

박지원 (1986). 사회적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백경림 (1998). CTS2의 자녀용으로의 수정 및 한국 대학생에 대한 타당성검증. *대한가정심리학지*, 36(2), 77-89.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조성진, 전홍진, 김장규, 서동우, 김선옥, 함봉진, 서동혁, 정선주, 조맹제 (2002).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병율과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1(6), 1142-1155.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진 (2003).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집단과 저위험집단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주성 (2004).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폭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수영 (1995).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명숙 (1998). 문제해결능력과 스트레스가 절망감 및 자살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2005). 2004년 사망원인통계.

Adams, D. M., & Lehnert, K. L. (1997). Prolonged trauma and subsequent suicidal behavior: Child abuse and combat traum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4), 619-634.

Anderson, G., Yasenik, L., & Ross, C. (1993). Dissociation experiences and disorders among women who identify themselves as sexual

- abuse survivors. *Child Abuse and Neglect*, 17, 67-686.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e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rown, G. R., & Anderson, B. (1991). Psychiatric morbidity in adult in patients with childhood histories of sexual and physical abu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55-61.
- Chang, E. C. (1998). Cultural difference, perfectionism, and suicidal risk in a college Population: Dose social problem solving still matt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3), 237-254.
- Chang, E. C. (2002). Predicting suicide ideation in an adolescent population: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problem solving as a moderator and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2, 1279-1291.
- Cheng, S. K. (2001). Life stress, problem solving,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 in chines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3), 303-310.
- Clum, G. A., Febrato, A. R. (1994). Stress,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appraisal/ skills: Prediction of suicide severity with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 69-83.
- D'Attilio, J. P., Campbell, B. M., Lubold, P., Jacobson, T. & Richard, J. A. (1992). Social support and suicide potential: Preliminary findings for adolescent population. *Psychological Reports*, 70, 76-78.
- De Man, A. F., & Leduc, C. P. (1995). Suicidal ide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Depression and other correlat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173-180.
- Dixon, W. A., Heppner, P. P., Anderson, W. P. (1991). Problem-solving appraisal stres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51-56.
- Dixon, W. A., Heppner, P. P., Burnett, J. W. Anderson, W. P., & Wood, P. K. (1993). Distinguishing among antecedents, concomitants, and consequences of problem-solving appraisal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357-364.
- Dubow, E. F., & Kausch, D. F., Blum, M. C., Reed, J., & Bush, E. (1989).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58-166.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 52-64.
- D'Zurilla, T.J. & Nezu, A.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156-163.
- Esposito, C. L., & Clum, G. A. (2002).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as a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ality: applications to a delinquent popul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2), 137-146.

- Evans, E., Hawton, K., & Rodham, K.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phenomena in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of population-based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957-979.
- Field, T., Diego, M., & Sanders, C. E. (2001).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dolescence, 36*, 241-248.
- Heppner, P. P. & Peterse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 of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484-498.
- Heppner, P. P. (1988). The problem-solving inventory (PSI)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 Kaplan, S. J., Pelcovitz, D., Salzinger, S., Mandel, F., Weiner, M., & Labruna, V. (1999). Adolescent physical abuse and risk for suicidal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9), 976-988.
- Kaltiala, H. R., Rimpela, M., Marttunen, M., Rimpela, A., & Rantanen, P. (1999).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Finnish adolescents: School survey. *British Medical Journal, 319*, 348-351.
- Langhinrichsen-Rohling, J., Monson, C. M., Meyer, K. A., Caster, J., & Sander, A.(1998). The Associations among family-of-origin violence and young adults' current depressed, hopeless, suicidal,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3), 243-261.
- Nilsen, W., & Conner, K. (2002).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child and adult victimiza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1*(3), 49-62.
- Platt, J. J., & Spivack, G. (1975). Manual for the means-ends problem solving procedure (MEPS):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 Philadelphia: Department of Mental Health Sciences, Hahnemann Medical College and Hospital.
- Pillay, A. L., & Wassenaar, D. R. (1997). Recent stressors and family satisfaction in suicidal adolescents in South Africa. *Journal of Adolescence, 20*, 155-162.
- Reinencke, M. A., DuBois, D. L., & Schultz, T. M.(2001). Social problem solving, mood, suicidality among inpatient adolesc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6), 743-759.
- Rich, A. R., & Bonner, R. L.(1987). Concurrent validity of a stress-vulnerability model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A follow-up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 265-270.
- Rudd, M. D.(1990).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 16-30.
- Sadowski, C. & Kelley, M. L.(1993). Social problem-solving in suicidal adolesc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21-127.
- Silverman, A.B., Reinherz, H.Z. & Gianconia, R. M. (1996). The long-term sequelae of child and adolescent abuse: A Longitudinal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0*, 7-9-732.
- Tanney, B. L. (1992). Mental disorders, psychiatric patients and suicide. In R. Maris, A. Berman, J. Maltzberger, & R. Yufit (Eds.)

-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uicide. New York: Guilford.
- Yang, B., & Clum G. A. (1994).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skill predictive of depressive symptom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n Asian student population: A test of a model.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24(2), 127-143.
- Yang B., & Clum, G. A. (1996). Effects of early negative life experiences on cognitive functioning and risk for suicide: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3), 177-195.
- Yang, B., & Clum, G. A. (2000). Childhood stress leads to later suicidality via its effect on cognitive functioni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 183-199.

원 고 접 수 일 : 2005.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2. 1.

게 재 결 정 일 : 2005. 12. 10.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blem-Solving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Kyung Park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blem-solving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suicidal ideation. Experimental group was 1st- and 2nd-grade senior highschool students. The total number of observations were 370 students, who were 169 male students and 201 female students. The instruments of the study were problem-solving inventory, social support scal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and scale for experiences of child abuse.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was implemented. The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test how significantly the experiences of child abuse, problem-solving, and social support variables explai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blem-solv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variables on suicidal ideation was also examined by the analysis. In the result, emotional child abuse showed the highest relation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In the correlation analysis, physical abuse, child neglect, witnessing to parental violence, and sexual abuse variables showed some significance. However, in the level of explanation, child neglect, emotional child abuse, and complex abuses only showed some significances. Especially, it was confirmed that complex abuses had strong relationship because complex abuses explained scale for suicidal ideation with high significanc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 variables on the rel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experiences of child abuse existed significantly. This is because suicidal ideation was lower in the group of high social support than in the group of low social support. For the groups of experiences of child abuse, the group who had problem solving ability had lower suicidal ideation than the group who had not it.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childhood abuse, problem-solving, social support